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 여부가 관건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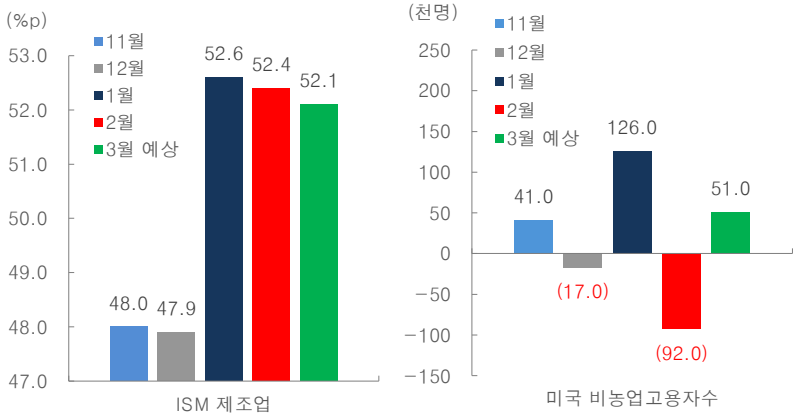
지나친 낙관론도, 최악의 부정론도 경계. 공포심리 확산 시 비중확대 기회

- 이란발 지정학적 충돌은 점진적인 협상 국면으로 진입 중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신호와 함께 지상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상반된 행동을 병행. 시장에서는 "발언보다 행동을 보아야 한다"는 우려와 동시에 이란의 협상단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상충되며 우려와 기대가 혼재된 상황
-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정학적 충돌 그 자체 보다는 에너지 공급망 봉쇄. 이란이 비적대국 선박에 대해 사전 협의 및 통행료 납부를 전제로 통행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에너지 공급망의 실질적 붕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 비용구조 고착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유가가 추가 상승하며 100달러 이상으로 고공 행진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등 우려 완화 가능
- 다음주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 4월 3일 밤 발표될 3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서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친 타격을 확인 가능. 3월 신규고용은 전월 –9.2만명 대비 개선된 +5.1만건으로 컨센서스 형성. 이는 3월의 전쟁 영향이 아직 고용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시사. 1일 발표되는 ADP 민간고용이 고용보고서의 가늠자가 될 것
-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확인. 주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와 31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4월 1일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예정.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료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효과와 기업의 가격인상 압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소비 위축과 가격전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 가능,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 24일 발표되었던 S&P Global PMI에서 이미 공급망 차질과 1년만의 고용 감소 전환이 확인되었고 부진한 지표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
- 글로벌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반면 국내에서는 긍정적 요인 또한 존재. 4월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진행되며 11월까지 점진적 지수반영 예정. 국고채 비율 증가에 따라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유입 기대. 4월 1일 3월 수출입 지표 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고한 펀더멘털 확인이 가능할 것. 두 요인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와 달러원 환율 하락이 유도된다면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부각될 수 있을 것
- 현재 코스피 5,460선 기준 선행 P/E는 8.26배로 선행 EPS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우려로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가 출구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공포를 활용한 매수 기회라는 관점 유지. 특히 환율 상승이 둔화되는 시점에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도체, 자동차, 증권, 지주, 방산, 2차전지 등 대형주와 주도주의 비중확대 전략 유효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정학 이슈의 단기 영향 제한적, 경제지표 전망은 최악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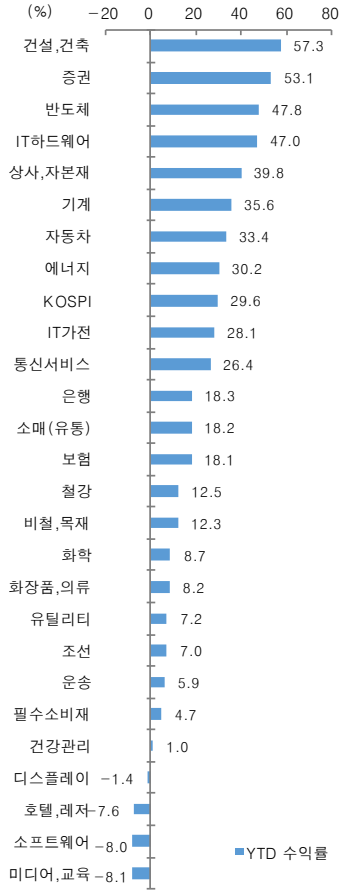
자료: ISM, BLS, CEIC,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5,460	-3.2	-5.3	-13.4	32.2	61.3	106.5	29.6
에너지	6,201	-4.1	-3.2	-11.1	32.1	49.5	78.6	30.2
화학	4,864	-0.7	1.3	-12.7	6.9	25.5	30.1	8.7
비철,목재	7,942	-2.6	-3.7	-22.0	13.7	38.4	56.6	12.3
철강	2,442	-0.4	1.0	-13.5	11.5	20.8	13.2	12.5
건설,건축	2,392	-2.7	-2.5	-2.5	57.9	65.9	107.6	57.3
기계	12,155	-2.4	-2.0	-5.6	38.1	59.3	196.6	35.6
조선	9,331	-1.1	-5.5	-11.1	6.5	13.0	92.4	7.0
상사,자본재	4,854	-3.4	-2.9	-6.1	46.1	62.7	148.5	39.8
운송	1,867	-2.0	-2.9	-16.8	6.7	10.7	18.5	5.9
자동차	15,810	-1.8	-5.9	-21.3	37.1	71.2	70.1	33.4
화장품,의류	5,306	-2.7	-4.1	-8.9	7.7	4.7	30.3	8.2
호텔,레저	2,135	-0.8	-3.2	-11.2	-5.6	-6.4	22.8	-7.6
미디어,교육	724	-0.5	-11.2	-18.4	-6.1	3.8	18.0	-8.1
소매(유통)	2,382	-0.5	1.2	-8.4	16.5	23.7	42.2	18.2
필수소비재	7,130	-0.9	1.5	-6.5	3.1	2.0	24.3	4.7
건강관리	10,690	0.2	1.5	-12.5	1.6	22.0	21.8	1.0
은행	3,166	0.9	-2.4	-9.9	18.1	28.3	76.1	18.3
증권	3,438	-2.2	-2.6	-13.3	53.9	64.6	132.5	53.1
보험	12,271	-5.2	-3.9	-11.5	17.8	23.4	77.5	18.1
소프트웨어	6,592	-1.4	-3.0	-16.5	-5.2	-10.6	9.6	-8.0
IT하드웨어	2,013	-1.6	-2.5	-1.7	46.4	97.6	150.5	47.0
반도체	30,703	-5.3	-9.3	-16.4	54.8	136.3	234.5	47.8
IT가전	2,373	-1.8	1.3	-12.0	25.0	50.7	45.8	28.1
디스플레이	696	-1.8	-1.4	-25.7	-1.4	-16.4	17.2	-1.4
통신서비스	464	0.3	1.7	-6.0	25.4	26.2	34.1	26.4
유틸리티	1,455	-1.4	-3.6	-20.9	4.4	29.3	84.0	7.2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8.4	15.9	17.6	3.2	2.9	3.1	17.3	18.1	17.6	1.6	3.7	▲
선진국	19.5	16.9	18.7	3.5	3.1	3.4	17.7	18.5	18.0	1.8	3.7	▲
신흥국	12.7	11.0	12.2	2.0	1.8	2.0	15.9	16.3	16.0	0.1	3.1	
북미	21.2	18.0	20.1	4.5	4.0	4.3	21.2	21.9	21.4	1.3	3.3	▲
유럽	15.4	13.7	14.9	2.2	2.1	2.2	14.5	15.1	14.6	-0.2	0.0	
퍼시픽	16.7	15.2	16.6	1.8	1.7	1.8	10.7	11.1	10.8	-0.6	-0.7	
라틴	10.8	9.9	10.5	1.9	1.8	1.9	18.1	18.2	18.1	0.0	4.6	
EM 유럽	9.3	8.1	9.0	1.3	1.2	1.3	14.2	14.7	14.3	-1.0	-1.5	
EM 아시아	13.3	11.3	12.8	2.1	1.8	2.0	15.5	16.0	15.7	0.2	3.4	
선진 시장												
S&P 500	21.2	18.0	20.0	4.6	4.0	4.4	21.5	22.4	21.8	1.5	3.9	▲
NASDAQ	25.8	20.6	23.7	6.1	5.1	5.7	23.7	24.6	24.1	2.2	5.4	▲
프랑스	14.9	13.5	14.5	1.9	1.8	1.9	12.7	13.2	12.8	0.4	1.5	
독일	15.0	13.0	14.3	1.7	1.6	1.7	11.6	12.5	11.9	-0.1	0.1	
영국	13.8	12.5	13.4	2.2	2.0	2.2	15.9	16.3	16.0	0.9	3.1	
일본	18.1	16.4	16.4	1.8	1.7	1.7	10.1	10.5	10.5	0.2	1.4	
신흥 시장												
중국	12.1	10.5	11.7	1.4	1.3	1.4	11.6	12.2	11.8	0.1	0.1	▲
인도	20.0	17.4	20.0	3.0	2.7	3.0	14.9	15.4	14.9	-0.1	0.8	
한국	8.6	7.3	8.2	1.8	1.5	1.7	21.3	20.2	21.0	2.6	15.1	
대만	19.8	16.1	18.8	4.1	3.6	4.0	20.6	22.1	21.2	0.6	2.7	
브라질	9.6	8.8	9.4	1.8	1.6	1.8	18.6	18.5	18.6	1.2	6.4	

기준일: 2026.03.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7.6				○		●				
선진국	18.7				○		●				
신흥국	12.2					○	●				
북미	20.1		○				●				
유럽	14.9							●	○		
퍼시픽	16.6								○ ●		
라틴	10.5								○	●	
EM 유럽	9.0									○	●
EM 아시아	12.8				○	●					
S&P 500	20.0		○			●					
NASDAQ	23.7	○		●							
프랑스	14.5						○ ●				
독일	14.3						○	●			
영국	13.4									○ ●	
일본	16.4								○ ●		
중국	11.7						○ ●				
인도	20.0	○		●							
한국	8.2			○ ●							
대만	18.8								○	●	
브라질	9.4								○	●	

기준일: 2026.03.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19.0	15.6	11.9	13.7
	선진국	16.1	15.6	12.2	13.9
	신흥국	35.1	15.6	10.3	13.0
권역(소)	북미	17.9	17.5	13.1	15.3
	유럽	13.1	12.0	10.9	11.4
	퍼시픽	10.8	10.2	8.0	9.1
	라틴	17.4	9.0	10.3	9.7
	EM 유럽	15.6	14.9	9.9	12.4
	EM 아시아	40.4	17.0	10.8	13.9
선진국	S&P 500	17.2	18.0	13.2	15.6
	NASDAQ	35.2	25.2	16.9	21.1
	프랑스	16.5	10.7	10.5	10.6
	독일	11.5	15.6	12.5	14.0
	영국	10.0	10.4	10.6	10.5
	일본	9.7	10.5	11.7	11.1
신흥국	중국	12.5	14.6	13.7	14.1
	인도	17.8	15.1	13.3	14.2
	한국	140.2	17.9	2.8	10.4
	유럽	13.1	12.0	10.9	11.4
	브라질	22.0	9.0	11.9	10.5

기준일: 2026.03.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